

# '사랑 그리고 정읍' 정읍사 문화제 개최

24~25일 정읍사공원 일원서 채수 의례·정읍사 여인 제례·축하공연 등 진행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33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는 24일과 25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정읍사 문화제는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아름다운 부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사와 (사)정읍사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크게 공식행사와 공연행사로 나뉜다.

24일 오전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 부도상 시상, 기념식 등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25일 기획공연과 청소년가요제, 정읍사가요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하공연에는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고 트로트 거장 진성이 출연해 공연장 분위기를 띄워줄 예정이다. 이어 화려한 태권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은 나태주와 트로트 요정 방서희, 김다현을 비롯해 미스블리, 조연비, 정주 등 많은 국민이 사랑하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제 기간 다양한 체험행사와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다양한 음식이 마련된 먹거리 부스 운영은 물론, 사랑의 열쇠 보내기와 페이스페인팅, 두더지게임, 키다리&풍선 피에로 퍼포먼스 등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33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는 24일과 25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거리퍼레이드 모습)

또한 정동교부터 정읍사공원 일원에 꾸며질 아름다운 경관조명은 '사랑'을 주제로 형형색색 LED 조명등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간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25일 오후 18시 30분부터는 신인가수 등용문인 '2022 정읍사 가요제'가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정읍사 가요제는 옛 대학가요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가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며,

인기가수 양지은과 신유, 김희진, 정재운이 출연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문화제가 다시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열리게 된 만큼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준비했다"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부산국제영화제 진출 성과

전주영화학교의 역대 수강생들이 오는 10월 4일 개최되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년 차를 맞은 전주영화학교는 지역 영화인력의 인프라 확장 및 도약을 목표로 전문 영화연출인을 희망하는 지역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5개월 여의 영화연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우수한 장편영화의 감독과 핵심 스태프들이 직접 제작과정을 교육하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함께 장편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과정을 통해 교육과 제작 가능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0 전주영화학교의 멘토링 과정을 거쳐 기

획개발작으로 선정된 최진영 감독(1기)의 '20세기 소녀들'이 전 세계 극영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의 투자·공동제작 마켓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프로젝트마켓에 선정됐다.

또한 1기 출신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한국단편경쟁' 섹션에 김은성 감독의 '절규'가 선정돼 전국의 우수 단편 영화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와 함께 2021 전주영화학교 기획개발 선정작인 김태휘 감독(2기)의 '빈집의 연인들'은 전주영상위원회 2022 장편영화제작과정 지원작으로 선정돼 10월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개 분야 공모 선정

남원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실시한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서 4개 분야(총사업비 7억 5750만원)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향교·서원 문화재,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총 4건으로, 이들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사업비 6250만원)은 '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라는 주제로 남원향교의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전통의 즐거움과 새로움의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한다.

문화재 야행(5억5000만원)은 '광한정허부, 옥황상제 달나라 궁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야경·야로·야화 등 8개의 야간문화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생생 문화재사업(5000만원)은 운봉의 황산대 첩비지, 관소리 동편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리리 고분군 일원에서 '백두대간 속 생생한 문강사'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고택·종가집 활용사업(1억 3500만원)은 남원 몽실재를 중심으로 축산박씨 종가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맛손클럽' 2기 교육생 모집

전주음식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는 시민참여형 모임인 '맛손클럽'이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맛손클럽'은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모임이다.

지난 8월 개강한 맛손클럽 1기 모집에서는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모집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번에 진행되는 맛손클럽 2기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해 고찰해 보는 이론과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지역 식문화

식견을 확장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뒀다.

2기 맛손클럽에서는 △홍신애 요리연구가의 '전주 식재료를 활용한 일품 요리' △이영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의 '개미 있는 전주음식' △황광해 음식평론가의 '전주의 음식은 장 이야기' 등 총 10회차 과정으로 꾸려진다.

맛손클럽 2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료자에 한해 특전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카이&아이비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 개최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4일 오후 5시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카이&아이비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하고 익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추진됐다.

뮤지컬 배우 카이와 아이비가 출연하여 뮤지컬

컬 위키드의 'Popular',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너의 품속에서', 뮤지컬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등 관객들에게 익숙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인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를 더해 신선한 편곡과 색다른 무대를 준비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조선시대 호남 군현 군적부 고증 학술대회 순창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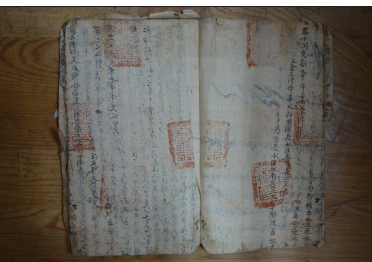
순창군·순창군 문화자원활용추진위원회, 23일 순창군립도서관서 개최

순창군과 순창군 문화자원활용추진위원회(위원장 강병문)는 오는 23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조선시대 호남 군현 군적부 고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경대학교 이복규 명예교수가 경주순창실씨대종회장인 설명환 선생이 소장한 목판본 군적부(軍籍簿)를 발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금번 학술대회는 강병문 순창군 문화자원활용추진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이 순창군의회의 의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환 경주순창실씨대종회장이 '호남지역 군적부의 입수와 발견 경위'를 주제로 기조발언에 나선 예정이다.

이어 이복규 서경대학교 명예교수가 '새로 발견된 호남지역 군적부에 대하여'를, 이상훈 육군박물관 부관장이 '조선 후기 지방군 운용



호남 군현 군적부 지지통감장목 배접시

과 군적부의 작성'을 발표한다. 조영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7~18세기 전라도 군영의 연령과 체계', 김현영 前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장인정화실장은 '군역 관련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군역 파악 방식의 변화'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아울러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호남 군적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군사 변화와 군사 정책', 조웅진 前 서울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호남 군적부 파기의 형질 인류학적인 분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토론에는 김철배 임실군청 학예연구사, 강신업 前 육군박물관 부관장, 오창현 목포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前 부원장,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선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선시대 호남 지역의 군적부 자료로는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조선시대 범무행정과 생활사를 이해하고 고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순창을 찾아와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